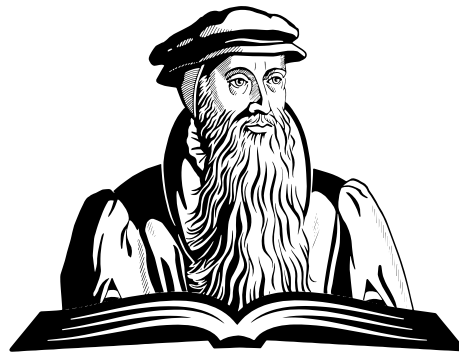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9: 시내산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9

시내산

강의 주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고, 자신의 통치 하에 그들을 데려오고, 그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택하고 구속된 백성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십니다.

본문: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12,14, 22).

강의 스크립트 9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글쓰기를 배울 때 종종 알파벳의 모양으로 그려진 여러 모양의 틀을 주고 그것을 따라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파벳 모양을 따라서 그리다 보면, 아이들은 단어를 쓰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설명 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사는데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대한 계시를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분은 이 완전한 삶의 표준에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할 때,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며, 이는 신자의 복음적인 경건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 분이 피조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시내산의 하나님은 신약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는 구약과 신약에서 변화되는가 아니면, 동일한 채로 남아 있는가? 시내산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같은 약속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인가? 율법의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율법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신자들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119:97)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가지게 된 구속의 관계가 어떻게 거룩과 지혜를 통해서 빛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모든 열방에 대하여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신명기4:6-8에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인지 드러냅니다. 하지만 같은 율법이 그 모든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 앞에도 주어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내산과 구속과 은혜언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생활하는 동안 그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은 호렙산에서 일어났는데,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으로서, 같은 산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는 불이 붙어 있었지만 타지는 않았습니.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내시고, 이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단 자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면 다시 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으로 다시 이끌고 오라고 지시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3:12은 우리에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서라고 말해 줍니다. 고로 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중요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다음 세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루어야 할만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연결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서로 대립되는 언약으로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관계를 은혜로운 관계로 보지만, 모세의 것은 인간의 공로에 기초를 둔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여서 이 은혜로운 관계를 방해한다고 여깁니다. 신약성경에서 모세를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실수를 범합니다.

제가 증명하고자 했듯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언약은 전개되는 중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했던 연속성은 지속됩니다. 모세언약은 창세기3:15을 궁극적으로 새 언약과 연결하는 계시의 역사 속에서 더 발전된 언약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모세언약은 은혜언약의 일부분입니다. 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와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내산과 율법의 수여가 구속과 은혜언약의 맥락속에 위치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은 구속과 은혜언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19:4,5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이 언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동일한 복음과 구속을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20:2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내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강의에서 보았듯이, 애굽의 속박에서의 구속은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구원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더욱이 율법, 그 자체도 복음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번의 강의를 통해, 성막과 희생제사와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상징들은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관련하여 놀라운 신학을 전해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레위기를 레위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그 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찢린다는 것은 언제나 자비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길 때 희생제사를 이용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역시 율법이라는 사실도 눈여겨 보세요. 다음으로 은혜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합니까? 바로 앞 강의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말입니다. 그 내용이 모세언약에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26:12에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

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모세 언약에도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26장과 신명기27,28장에는,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언약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26:40-45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와 가지는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말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를 이해하는데도 핵심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소가 신약성경에는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11장에서 새로운 언약의 식사인 성찬에 자격없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엄중한 경고로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는 표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6,10,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2,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깜짝 놀랄만한 경고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겨우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이해해야 이러한 신약성경의 구절들에 대한 배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과 구속, 시내산과 은혜언약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정말로 수많은 구절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가지 예를 더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할 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26:28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 이런 표현은 유월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24:8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흥미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더 연구하는 가운데 더 많은 연결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신학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만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 첫번째 요소를 다루면서, 거룩과 순종으로의 부르심이 구속이라는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그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면서 더욱 강화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칙과 복음적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측면입니다.

둘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이 계시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계시는 분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방식들을 요약하십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대문자로 L-O-R-D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로 L-O-R-D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구약의 남은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실 것이며, 그 구절들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그 구절들은 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다룰 때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은 역사상 처음으로 불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계시에 대한 몇 가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두 경우에 대하여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가시떨기만이 아니라 시내산에 있었던 불을 기억하세요. 모세는 가시떨기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이 산에 가까이 오거나 이 산을 침범하지 말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

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벧전1:16에서 보듯이, 신약성경에도 여전히 표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성경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사실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성경의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6:1-3에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천사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적어도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거룩과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결입니다. 거룩은 순결하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혹은 흠이나 비난받을 것이 없거나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의미는 바로 분리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른 모든 책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른 모든 식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다른 여섯날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분리되었고 그의 백성들과 죄에서도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에 관한 율법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들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남은 모든 인류와 분리되고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 다. 물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죄로 부 르기를 거부할 때 혹은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찬탈하여 우 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른 계시는 그 분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으 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우리는 그 분의 사랑을 율법에서 볼 수 있습니 다. 율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봅니다. 이 말에 주목하세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단어들은 십계명 전체에 걸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율법의 첫 번째 돌판이라고 부르는 처음 네 계명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바로 사랑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어떻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처럼 그 분의 교훈은 사랑 의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율법과 사랑이 서로 반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은 뿔레야 뿔 수 없이 연 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이를 지지합니다.

로마서13:10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사랑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14:15)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요한 일서5장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율법을 요약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마22:35-40) 이렇게 율법은 사랑의 관점에서 요약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또 다른 계시 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분은 자신을 “너희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 말씀은 첫번째 돌판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계명에서 새 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 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에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위를 다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대로 그저 그 분을 예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소유권을 야곱의 후손에게 두셨습 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질투는 불타는 사랑입니다. 아가서 8:6,7에 있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요약하면,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시내산으로 가면 이 영광은 불타고 있습니다. 신명기5:24에 나온 말씀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그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불이 자신을 태워버릴 것 같아 겁에 질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도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1절은 심지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2장은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장은 28,29절로 끝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다음 요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는 율법의 범주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의 다른 범주들을 이해하면 율법과 신약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율법들은 영구적이지만 다른 것들은 시내산에서 일시적입니다. 심지어 구약성경의 신자들조차도 이러한 범주와 구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시 40:6, 51:16). 뿐만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정말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교회는 세대를 거치면서 율법을 세 개의 주요한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혹은 실정법, 그리고 의식법입니다. 이 세가지 범주를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도덕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덕법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 있을 때 그에게는 도덕법 전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도덕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으로 십계명에 요약되었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영원하고 영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도덕법은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바울과 다른 많은 곳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강화되고 해석됩니다.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실정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시민생활에 관한 법이거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법입니다. 이는 사회정치적인 법으로서 신정국가로서 독특한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함께 종료되었으며 그 율법의 일반적인 정당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킬 의무가 없다.

세 번째, 범주는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함 그리고 분리와 정결에 관한 것에 대한 모든 율법을 가리킵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행하는 경배와 제사장과 제사제도과 같은 것들을 관장하는 율법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식법들은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을 비롯해서 그 분이 신약성경에서 행하신 사역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이어질 세번의 강의에서, 이러한 의식적 제도와 율례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의식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법들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이 율법들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폐지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강의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요약된 도덕법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도덕법이 핵심입니다. 다른 법과는 구별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존 오웬은, “하늘의 가르침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점진적으로 드러났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결합되고 체계화되어서 예배와 순종을 위한 하나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이 되었고 통일된 진리체계로 교회에 제시되었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열 마디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34장과 신명기4장 그리고 신명기1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어로 “데칼로그

(Decalogue)”라는 단어가 온 것입니다. 데칼로그가 바로 열 마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신9:10). 이 자체는 이 십계명이 영원하며 핵심적이라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이 따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신명기5:22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열 마디 말씀 혹은 십계명은 그 자체로 언약이고 증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몇몇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돌판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언약궤 안에 놓여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서 5-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돌판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 즉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 돌판을 보면 모든 계명이 예배와 관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계명은, 그 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규정하신대로 그 분을 예배해야지 우리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은, 왜 우리가 그 분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성한 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특히 그 분이 지정하신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첫째 되고 큰 계명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22:37,38) 예수님은 처음 네 계명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 계명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십계명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신 A.T 베르군스트 (Vergunst) 목사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신 강의를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애굽기31장과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존 오웬은, “일단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글로 표현되자 성경을 소유하게 된 유한한 각각의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못지 않게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고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 있는 도덕법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현대인을 위해서 도덕법이 가진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인정하셨으며 심지어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법이 영원하며 자신은 그 도덕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5:17-19 말씀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음으로, 예수님은 같은 장에서 십계명을 설명하시기 시작하시고는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왜곡하여 만든 그들의 율법해석을 논박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와 바른 의미는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지 단순히 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율법의 요구를 강화시킵니다. 율법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동기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수여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 귀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율

법의 교훈에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바울은 도덕법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사용하는 현실과 마주대해야 했습니다. 두 분은 율법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내가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 것이라는 생각과 같이 율법을 칭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박하면서도 우리가 율법을 모두 버리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3:31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과 도덕법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자들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시로 읊조리나이다” (시119:97)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는,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그 율법을 표준으로 사용하여 우리를 그에 합당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표현을 신약성경에서도 발견한다는 사실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로마서7장에서 바울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12절)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4절)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2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시편기자의 말과 같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1:8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5:3에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쯤에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율법의 세 가지 주요한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의 첫 번째 용도는, 악을 제어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용도를 율법의 시민적 용도라고 불립니다. 율법의 선포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억제하는 영향력으로 작용합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서 죄를 드러내고 양심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각성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신학적인 용도라고 합니다. 율법의 이 용도는 사람이 죄를 각성하도록 인도하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갈 3:24).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불신자가 회심할 때뿐만 아니라 신자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계속됩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구속받은 신자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용도를 우리는 신자의 삶의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이 기능은 우리가 반드시 죽이고 피해야 할 죄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동기는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가지게 된 구속에 대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순종의 기준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율법은 억제제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며 삶의 규칙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더 많은 것을 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며 복음은 다시 우리를 신자의 삶의 규범이 되는 율법으로 몰아갑니다. 율법과 복음은 둘 다 성경에 있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절대로 칭의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역사하므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내산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구속이라는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룩

함을 따라 그들을 살아야 하는 삶의 표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성막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진리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